

## 환경사원 등 현장근무자 무료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 서비스 향상 기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쓰레기 수거 등으로 야외에 노출되어 일본뇌염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경사원 등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여수보건소(사노피파스퇴르 백신 기부)와 협조하여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으로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감염되어 뇌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일단 일본 뇌염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성인에 있어 단 1회 접종만으로 2주 만에 충분한 방어면역을 형성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예방접종을 통해 환경사원의 일본뇌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2018 상반기 정년퇴임식 가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지난 28일 진남문예회관에서 퇴임자 가족, 공단 직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정년퇴임식은 공로패 수여, 꽃다발 증정, 격려사, 퇴임자 소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퇴임자를 대표한 오도환 사원은 “20년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명예롭게 퇴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직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후배직원들에게 공단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정학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수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오신 퇴직사원들의 그동안 노고와 그 곁에서 힘을 보태주신 가족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퇴직 이후에도 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2018년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지난 6월 5일 오후1시30분에 공단 이사회실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2018년도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10명의 위원(사측 5명, 근로자측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문택 경영본부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2명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 뒤 퇴직금 담보 저리 학자금 대출 방안 마련 등 근로자측에서 요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요구안건 중 즉시 답변이 가능한 안건은 현장에서 합의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환경사업소, 장마철 감염병 예방 방역 강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상암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 3회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발생하는 유해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감염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근 지역내 주민들을 보호하고, 환경사업소 근무자에게 깨끗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역 활동에 나섰다.

환경사업소장은 "그동안 실시한 방역활동과 함께 주민들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는 단 한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방역을 통해 각종 해충을 퇴치하여 주민과 직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신월동 환경사원복지관 차고지 포장

#### -자갈 튀고, 먼지 발생하는 불편 해소 기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이 신월동 환경사원복지관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그동안 비포장 상태의 차고지는 차량이동시 자갈이 튀어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먼지 날림과 우천시 빗물이 튀어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이에 1만1000㎡의 차고지를 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25일 준공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에는 환경사원복지관 사무실이 주차장 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호우 시 침수가 우려됨에 따라 사무실 우수관 설치(36m)도 함께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포장으로 우천시에도 청소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사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